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0월 12일 (제76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최고의 스펙

‘스펙(Spec)’이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specification의 신종어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가 곧 스펙인 셈이다. 그래서 각종 자격증을 따는 등 스펙 쌓기에 열을 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펙은 따로 있다. 그것은 좋은 이미지이다. 좋은 이미지가 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웃는 얼굴’이다. 웃음은 최고의 화장이고 최고의 특기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이 요즘 스마일 트레이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웃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어느 심리학자는 “입꼬리가 밀려 올라가고 눈에서는 빛이 나며 눈가에는 주름이 잡히는 웃음인 진짜 미소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미소 짓는다.”고 말했다. 예전에 방문했던 일본 최고의 음식점인 행락원 사장에게 ‘이곳은 무엇을 제일 잘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웃지 않는 자를 해고하는 것을 잘한다.’ 라고 말했다. 그 까닭일까? 그곳은 100년 역사 속에도 변하지 않고 일류음식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도 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살짝 웃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둘째는 언어다. 말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온다. 그래서 사람 속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된다. 셋째는 행동이다. 어느 회사에서는 면접 때에 급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으로 오라한다. 그 때 신발을 어떻게 벗고 들어가는지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행동은 그 사람의 외적 스펙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높은 토익점수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얼굴, 말과 행동이 진짜 당신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스펙을 원한다면 당신부터 관리하라.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친구가 많다

발렌시아 집회 이튿날 오전에 발렌시아 시청을 방문하였다. 발렌시아 도착 첫날 가졌던 방송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발렌시아 시장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시청에 도착하자 산티아고(Santiago) 시장의 비서가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영접하는데, 현직 변호사라는 그녀는 매우 스마트하고 친절함 미소를 갖고 있었다. 목사님은 시장을 돌보이게 하는 비서라며 그녀를 칭찬하셨다. “어느 조직이나 그에 대한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방문자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수장이나 단체에 대한 인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셨기에 전 세계를 다니며 그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하고 싶은 말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친구를 많이 둔 사람입니다. 여기만 앉아있지 말고 세계를 다니며 시야를 넓히고 인맥을 쌓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원유매장량이 세계 제일이라 들었는데, 그 많은 자원을 두고도 가난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로

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성공한 선진국들은 제쳐두고 쿠바(Cuba), 북한, 이라크(Iraq), 러시아(Russia) 같은 나라와 친구니 잘 될 수가 있나요.” 국가를 건져달라고 한국까지 달려왔던 그였기에 그 깨달음은 더욱 깊은 한탄으로 이어지는 듯하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발렌시아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마라카이의 돈 디비노(Don Divino, 하나님의 은총)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다.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뒤에 서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단상 위로 몰



베네수엘라 마라카이(Maracay) 집회 광경

상을 갖게 된다. 이 비서는 단정한 외모와 스마트한 일처리, 친절함 응대로 누구나 발렌시아 시장과 시청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성도를 맞이하는 사람 모두 명심해야 할 일이다.” 산티아고 시장 대행은 젊고 귀티가 나는 인상이었다. 그는 가톨릭 신자라 했다. 목사님은 역시 그에게 꿈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나는 한 때 사지가 마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내 가족에 의사가 6명이나 있지만, 현대의학이 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2천

보내 교육시키고 그들을 자원으로 오늘날 경제대국의 기틀을 다졌습시다. 어느 조직이나 머리가 썩으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시장부터 교육에 힘쓰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산티아고 시장 대행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또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는 목사님의 저서 스페인어판을 자필 사인하여 시장과 비서에게 각각 선물해주었다. 동행했던 루이스(Luis) 목사는 머리를 두드리며 한탄했다. “성공한 친구를 뒤야 성공한다는데, 우

려들었다. 용신할 틈 없이 가득 찬 가운데 성도들은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드리자는 순간 서로 앞을 다투며 목사님 앞으로 나와 헌금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돈 걱정하던 루이스 집사에게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신대로 하나님은 역사해주신 것이다.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발렌시아 시장에게 목사님의 저서를 선물했다



발렌시아의 산티아고 시장 집무실 방문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마라카이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6:6~11)



자신감은 준비한 자의 것이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늘 미리 미리 악보를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연장에 관객은 짝 차서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지휘자는 실려 간 상태이니 단장은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때 단장은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봉을 주어 무대를 열었고, 그때 그의 나이 19세였으며, 그 날이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미물인 개미에게서 준비성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겨울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를 보고 인생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준비량과 정비례합니다. 준비한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나 시험 준비를 많이 해놓은 학생은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험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초조하기만 할 것입니다.

매사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외집회에 다니다보면 이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집회가 수월할뿐더러 성공적으로 집회를 치르는데, 그저 돈이나 계산하면서 이초석 목사만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집회는 땀방에 헤딩하듯 힘만 들고

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할 때, 미리 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하셨습니다(창22:14).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풍성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예수님도 우리를 죄악과 고통에서 우리를 탈출 시키려고 고대



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을 버리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유로 내려오사 성육신하셨고,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조용히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의 능력을 펴사 고통 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양병십년 용병일일(養兵十年 用兵一日)’이란 말이 있지요. 이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경구가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

에 많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에게 보잘 것 없는 광야의 양치기로 내리사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그의 의지가 아무 쓸모없음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역사, 출애굽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를 잘한 자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준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풍

년동안 넘치는 곡물을 열 마나 저장했는

지 각 성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칠 정도였다고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흉년 때에 팔아 애굽을 대국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 말씀은 건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에서 예를 들자면, 당신이 기업의 오너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정상급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준비하지 않고 덤비면 망신만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력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고 준비보다 탁월한 무기는 없다

학생들은 공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테이트도 좋고 낭만도 좋지만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부는 서둘러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를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소래에 가서 각종 젓갈도 사다놓으시고, 시래기도 말려놓으셔서 대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준비하는 여인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젊어서는 명품 안입어도 예쁩니다. 젊어 명품 들고 늙어 쪽박 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저축해서 늙어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사후준비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득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대충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섯 처녀의 기름이 그만 다 떨어져갔습니다. 그 때서야 다섯 처녀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종종걸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데, 이 비유는 늘 성령 충만하여야 불현듯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는 준비가 안 된 자들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4). 지혜로운 자는 매사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기회가 오고, 성공이 오고, 영생이 보장됩니다. 모든 것에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이고 준비한 자가 성공을 낚는다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자는 최고의 전략술에 대해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놓은 다음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준비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준비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창2:8). 그 뿐이 아닙니다. 그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에덴으로의 회귀

은어는 10~11월에 알에서 깨어나 바다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봄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그런데 은어가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어류학자들은 은어가 사라진 이유를 불루길, 배스 등 외래육식어종의 변성과 어장환경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땅한 천적이 없는 외래육식어종은 대단한 번식력과 함께 은어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다른 어종에 비해 입이 작은 은어는 먹이가 로티프라고 불리는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제한돼 있어 먹이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산란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은어 회귀를 복구시키기 위해 서식 환경의 개선과 외래육식어종의 퇴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어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통해 천국과 같은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는 길목에는 불루길, 배스와 같은 사탄과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연약한 인간은 영적으로 생존하고 전도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공동으로 영적 생존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영적 환경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개개인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배

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 출구 쪽 자리 양보하기, 주차장에서 다른 차가 빠져나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먼저 빼주기, 다른 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기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신앙의 동질성과 공동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것이 오래가고 효율적입니다. 연령대별, 목적별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같이 하나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룹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경공부와 교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빼빼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교회 조직, 예배방식, 설교말씀, 찬송가 등도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하고 교회의 중심 세대, 예를 들면 30~40대 세대에 많은 비중을 두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개선에 힘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에덴의 파라다이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간음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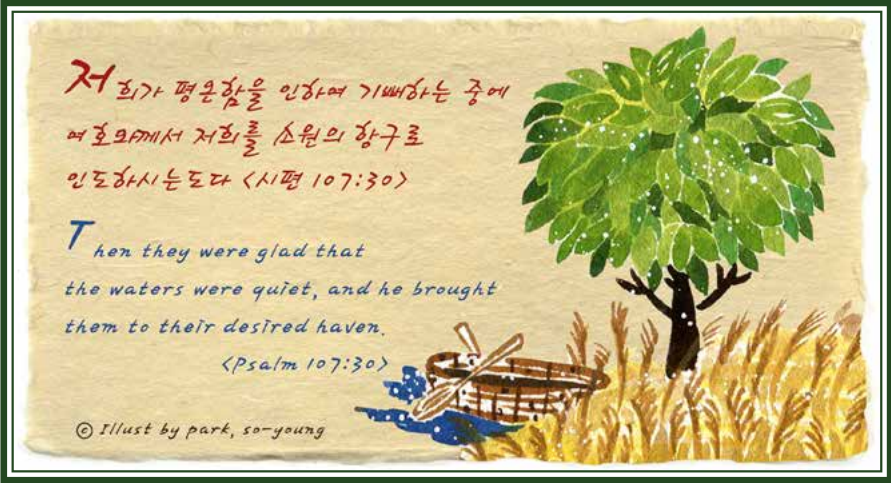
십계명 중 제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출20:14). 간음이란 결혼서약의 위반으로 부부 이외의 사통(私通)을 일컫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상대가 유부녀일 때에만 간음으로 인정했고, 그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다(신22:20, 겔16:38~40, 요8:5).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실질적, 정신적인 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6:9~10). 육적인 간음도 이와 같을진대 영적 간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夫婦), 즉 결혼에 비유되고 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호2:19~20). 그런데 이스

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을 섬기는 간음죄를 지었다. 결혼서약을 파한 것이다. 간음한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 당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정처 없는 유랑생활을 해야 했다.

오늘 우리는 외도하지 않고 한 남편을 지아비로 잘 섬기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다면 이는 분명 간음이다. 반대로 마음은 주께 있으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치한 자도 간음이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온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음한 모든 것을 회개하면 고멜을 찾아 호세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 나서리라!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인생의 맛!

아들아!
내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는 참으로 다양한 맛이 있더구나. 어른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고, 쓴맛 단맛 다 봤다고 하시던 말씀이 어찌 그리 딱 맞는지, 너도 더 나이가 들면 이 말에 무릎을 치며 동의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전에 먼저 먹이는 것이 있다는 구나. 첫 번째는 식초로 신맛을 보게 하고, 두 번째는 소금으로 짠맛을, 세 번째는 씹바귀의 흰 즙으로 쓴맛을, 네 번째는 가시로 혀를 찔러 아픔을 맛보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탕으로 단맛을 느끼게 한다는 구나. 삶의 굴곡을 맛으로 미리 맛보라는 거겠지.

정말 인생은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이 고루 배어 있는 것 같다. 실패로 쓴맛을 봐야 하고, 누군가에게 호되게 당해 매운 맛도 보고, 비판을 받아 짠맛도 봐야 하고, 황당한 일로 신맛도 봐야 한단다. 성공한 모든 자들은 물론 믿음의 선전들조차도 다 이 맛을 피할 수 없었지.

사도 바울을 볼까? 그는 태어나면서 달콤한 맛을 먼저 맛보았단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으니

그는 자신의 인생에 굴곡은 없을 줄 알았겠지.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속이 역겨울 정도로 쓴맛을 맛보아야만 했단다. 어디 쓴맛뿐이었겠니? 속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도 보았고, 아찔한 신맛도 보았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맛본 후에 그가 한 말이 있지. 바로 이것이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 이 모든 것이 다 명약이었다는 거지.

너도 알겠지만 요즘 웰빙식품은 절대 달지 않은 것들이란다. 오히려 씹쓸하고 시큼한 것들이지. 양약구구(良藥苦口)라고 했지 않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나 좌절, 아픔, 오해 등은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특이 된다는 말이지.

네가 늘 가까이서 봤지만, 아비도 시련의 쓴맛, 핍박의 매운맛, 역olum한 짠맛 등을 누구보다 많이 맛보았단다. 정말 뽕고 싶었지. 그러나 참고 삼켰단다. 왜 그런 줄 아니? 훗날 주님이 주실 달콤한 맛을 알기 때문이지. 쓴 한약을 먹고 난 뒤에 사탕 하나 물면 그 맛이 기가 막하지 않니? 인생

의 쓴맛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맛은 까무러칠 만큼 달 걸 알기 때문이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4).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쓴잔을 마셨단다. 그러나 그 쓴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지. 그러나 알 것은 우리도 그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단맛을 얻을 수 없다는 거란다. “자녀이면 또 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7~18).

네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길에 달콤한 꿀만 널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마라. 단맛은 결국 맵고 쓰고 시고 짠맛을 경험한 후에게 맛보게 되는 영광이란단다. 그러니 맵다고 쓰다고 시고 짜다고 뽕지 말고 삼켜 네 몸의 양약이 되게 해라. 그것이 결국 네 인생에 단맛을 가져다 줄 거야.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로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가 뿌리깊이 박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 생활 속에 깊은 경건이 있었고,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운동”을 주도하면서 15년 동안 20여 명의 준수한 청년들을 모아 놓고,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어 감리교를 창시한 데에는 지난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모라비안 운동(모임)의 역할이 컸습니다. 1727년부터 독일의 한 변방에 모인 48명의 경건파 지도자들이 24시간 연속으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100년 동안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돌리시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지금 여러분의 제단에 기도의 불은 켜져 있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돌 하나씩을 옮기자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래희망이 있다. 대통령, 과학자, 소방관, 선생님,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 아이들은 다양한 장래희망을 갖고 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대학원생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고생들에게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in서울’이거나 ‘스카이’다. 고3이 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내 성적에 맞는 학교’로 바뀐다. 대학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차여행과 봉사활동부터 세계 일주까지 다양한 계획을 말하고, 운전면허증부터 각국 언어의 습득 등 방대한 공부목록에 불타오른다. 그러나 대학 졸업반에게 물어보면 토익, 토플 성적이 오르길 희망하고, 족집게 면접 스테디에 자신도 참여하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넌 커서 뭐가 될 거니?”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꿈이 점점 현실과 맞

닿아 희미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나 역시 그들과 비슷하게 대학 신입생 때부터 꿈꾸었던 나의 모습은 오래된 사진첩의 사진처럼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꿈을 축소시키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서투르지만 풋풋했던 열정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았다. 답은 생각과 실천의 차이에 있었다. 화가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에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하다못해 동네 피아노학원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고, 신문사에서 주관한 미술대회에서 금상 수상도 했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00명 중에서 80등이었던 내가, 고려대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비웃었지만 나는 지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내가 달라졌다. 십년이 넘는 동안 근 천 편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 평론가가

년이 철길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했지만 소년은 더욱 세차게 웃을 흔들여 대었습니다. 당황한 기관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차가 멈춰선 후에서야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교는 끊겨 있었고 만약에 정차하지 않고 달렸다가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될 뻔했습니다. 승객들이 심한 공포 속에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기관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한 위대한 소년을 보십시오.” 기차에 깔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져 비참하게 죽은 소년의 시체였습니다. 기관사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소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죽고 말았습니다.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와 비

될 것이라 큰소리만 치고 살았다. 술한 소설책을 사 모아 놓고 읽으면서 소설가가 되겠다고 했지만, 그 흔한 습작노트 한 권을 만들지 못하였다. 매일 밤을 책상 앞에서, 침대 안에서 만리장성을 수천 번 쌓았지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주어진 업무와 과제로 지난밤에 쌓았던 만리장성은 물거품처럼 스러져 버렸다. 그렇게 십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만큼 내 실천도 필요하다. 손발에 흠과 땀을 묻혀가며 돌 하나 옮기는 실천이 있어야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습작노트가 쌓여야 작가도 되고, 영화평론가도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2:26). 더 늦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 돌을 옮기기 시작해야겠다. 예수 중심의 많은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도 멋지고 근사한 꿈을 위해 함께 돌을 옮겼으면 한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놓임 받게 되었습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막아선 목동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잠깐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희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금연합시다

10년 만에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한다. ‘이 기회에 금연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왜? 담배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온갖 병에 걸리게 하는 위험인이자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일찍 사망한다. 담배의 주요병폐를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첫째, 담배는 암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3명 중 1명의 발병원인이 흡연이다. 폐암은 물론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등 많은 암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담배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망가뜨린다. 심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뇌혈관이 망가지면 중풍, 즉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담배는 폐를 망가뜨려 폐기종을 일으킨다. 폐기종이란 호흡능력을 떨어뜨리는 병으

로 단순히 숨만 못 쉬는 것이 아니라 기관지와 폐의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다. 흡연은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담배를 피우면 폐기능이 떨어져 운동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치아도 누렇게 변색되며 치아손상도 심해진다. 담배는 모든 사람에게 해롭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다. 청소년이 흡연할 경우, 일찍 니코틴 중독이 시작되어 담배를 끊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담배의 악영향이 누적되어 암이나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기 쉽다. 그렇다면 이로운 점은 하나 없고 우리 건강에 나쁜기 만한 담배를 왜 끊지 못하는 것일까? 흡연자의 상당수는 이미 니코틴 중독이 심해 굳은 의지만으로는 담배를 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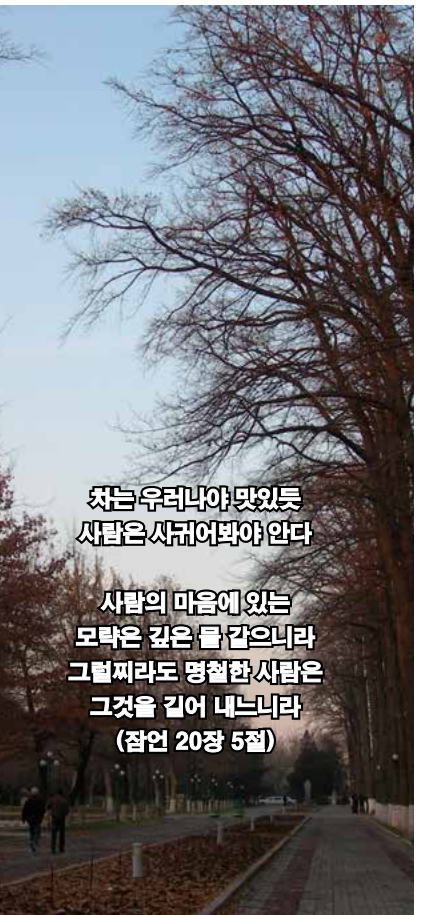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니코틴 중독이 심한 사람은 담배 없이 한 시간을 버티기 힘들데, 몸속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이 나며 정신집중이 안 되는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약물을 통해 외부에서 니코틴을 공급받아가며 금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몸에 붙이는 패치와 씹는 껌이 있고, 먹는 약으로 바레니클린(첼픽스®)은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하여 흡연하지 않더라도 마치 흡연한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또 흡연했을 때 쾌감을 줄여줘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첼픽스는 약 3개월 복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 천만 명이 흡연인구라 한다. 그들이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다면 답은 명확하다.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성공하는 습관!

손 코비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횡방자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밀어줄 수도 있다. 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하인이며, 또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 할 지도 모른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하라. 나를 엄격하게 다뤄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 발 앞에 갖다 주겠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손 코비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기록된 글입니다. 우리는 습관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 게으른 것도 부지런한 것도, 늘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또 하지 않는 것도 습관 때문입니다. 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나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서 따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 가운데 95%가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말을 바꾸고, 당신의 말이 인격을 바꾸고, 당신의 인격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우리나라맛있듯
사람은사귀어봐야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찌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깊어 내느니라
(잠언 20장 5절)